

혈액투석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한 티제 증후군 1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병수 · 박종경 · 박준형 · 이정호

A Case of Tietze Syndrome in a Patient on Maintenance Hemodialysis

Byung-Su Kim, Jong-Kyoung Park, Jun-Hyung Park, Jeong-Ho Lee

Division of Neph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Medical Center

서론: 티제 증후군은 흉통의 근골격계 원인 중 드문 질환으로 상부 늑연골 접합부의 비화농성, 동통이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늑연골 부위 부종을 특징으로 하며, 이 증상과 관련된 다른 원인 질환을 배제한 경우 진단된다. 저자들은 혈액투석 환자에서 발생한 티제 증후군 1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당뇨로 인한 말기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시행 중인 62세 남자환자가 내원 15일전부터 발생한 전흉부 통증과 압통을 주소로 입원하였다.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정상하였고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에서 왼쪽 제1 늑연골 관절에 통증, 압통 및 부종이 있었다. 청진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고, 통증은 활동 시 악화되었다. 혈액 검사에서 WBC 8,650/mm³, Hb 10.0 g/dL, Hct 27.6%, PLT 353,000/mm³ 이었고, 생화학 검사에서 CK 30 U/L, LDH 171 U/L로 정상범위이었다. 단순 흉부촬영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으나 흉부 초음파에서 왼쪽 흉골쇄골 부위 연조직의 전반적인 부종 소견을 보였으며, 골스캔에서 늑골흉골, 흉골쇄골 부위에 섭취율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Meloxicam 투약 후 현재 통증 감소한 상태로 입원 관찰 중이다.

Key Words: 말기 신질환, 티제 증후군

End Stage Renal Disease, Tietze Syndrome